

# 옥정호 관광도로 개설 물꼬

### 교통환경·수변도로개설 타당성 조사에 국비 2억원 추가 반영

임실군민의 염원이 담긴 50년 숙원 사업인 옥정호 수변관광도로 개설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6일 심 군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섬진강 댐 건설 이후 반세기 넘게 개설되지 못한 옥정호 수변관광도로에 대한 국가예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도로 개설에 첫 물꼬를 트게 됐다"고 밝혔다.

심 군수는 이날 옥정호 수변관광도로 국비 확보와 관련해 "도로 개설의 사전단계인 국토부의 교통환경 및 필요성 조사를 위한 국비 2억원이 2018년 정부예산에 추가 반영됐다"며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반세기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옥정호 수변관광도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800억원을 투입, 옥정호 남측 10km 구간 도로를 내는 사업이다.

총 15.8km 구간 중 1단계(강진~운암)인 5.8km는 전라북도가 공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2.8km(강진~운암)구간은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2단계(운암~사양)인 10km

구간에 대한 국비확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심 민 군수는 민선 6기 취임이후 옥정호 수변관광도로 개설사업을 최대 숙원사업으로 보고, 지난 3년간 집요하리 만큼 국비 확보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심 군수는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50년 전에 정부가 필요해서 댐을 만들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임실군민이 고스란히 떠안았다"며 "부속도로 만큼은 반드시 국가에서 해줘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하며, 끊임없는 설득작업을 벌여왔다.

특히 국토부의 사업타당성 부족과 지방도에 대한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에 맞서 ▲국토부에서 2004년에 수립한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된 점 ▲적성댐 건설 백지화로 안정적 용수공급 목적 달성과 국고를 절감 한 점 ▲제1호 다목적댐으로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을 역설하며 2018년 국비 27억원 지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예산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여기에 포기하지 않으며 지난 9월부터 국회의 예산심의 시 추가

반영을 위해 상임위와 예결위,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지난 11월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국토부 조사용역비 2억원과 신규사업 10억원을 각각 반영시키는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다.

그럼에도, 최종 확정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정부의 SOC 예산 삭감 등 논리에 부딪혀 국회 예결위 및 정부와의 예산 협의과정에서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

이에 심 군수는 지난 11월부터 여러 차례 국회를 방문하고, 국가예산 대응 반까지 상주시키며 밀착대응 활동을 전개했다.

심 군수는 "옥정호 남측도로는 국가가 만든 댐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 줘야 하는 게 당연한 데도 그동안 정부는 지방도라는 이유를 들어 수차례 거절해 왔다"며 "이제라도 우리 임실군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도로개설 사업을 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용역비(국비)를 확보하게 돼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임시 개소

### 내년 8월쯤 정식 오픈 예정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12월부터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우선 개소한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 우선 개소는 보건소장을 센터장으로 간호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 신규 채용 인력 5명과 기존인력 2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치매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상담·등록·검진팀, 심터·가족지원팀, 인식개선·홍보팀 등 총 3개팀으로 구성하여 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치매상담, 사례관리, 조기 검진 및 등록, 치매 이동상담실 운영,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 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차질없는 센터 설치

운영을 위하여 2017년 국도비 7억 4000만원 등 총사업비 9억9500만원을 확보, 기존 보건소 부지내 2층으로 연면적 462㎡ 규모로 시설을 확충, 2018년 8월쯤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새로 건립된 센터는 사무실, 교육상담실, 검진실, 프로그램실, 단기원터와 치매 가족카페를 설치하여 치매어르신들의 초기 안정화와 치매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전담 코디네이터로부터 초기상담, 치매조기검진, 1:1사례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받게 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치매환자와 가족 그리고 치매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통해 치매 걱정없는 사랑의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 남원시, 전문가 초청 시민공청회 15일 춘향문화예술회관서 진행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남원시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가칭)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오는 12월 15일 오후 2시,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된다.

남원시는 관련분야 전문가 4명을 초청, 지역상품권 발행에 따른 장단점과 타지역 운영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상품권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과 효과를 사전에 진단하여, 지역상품권이 '지역순환 경제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대형마트 관계자 등 직종별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에 대한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권 발행의 성공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의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역대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이른바 지역화폐로써, 최근 정부에서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 지역상품권 발행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50여개 지자체에서 운용 중에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 이동복지상담실 운영 호응

순창군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군민들을 돕기 위해 추진했던 '찾아가는·이동복지 상담실'이 성공적으로 운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이동복지 상담실을 통해 443건의 맞춤형 복지상담 실적을 올렸으며, 연간 2,639명의 주민들이 이용해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였다고 밝혔다.

실제 폐질환과 당뇨를 앓고 있는 조모씨(68세)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친척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동상담을 통해 맞춤형 급여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읍면 복지 허브화 사업 시행과 연계한 이동복지상담실 운영은 복지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어렵고 불편한 점 그리고 복지 분야의 궁금증과 일상생활 등을 상담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으로 소외받는 군민들을 찾을 수 있었다"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형 발효제품 불티... 1억원 판매 돌파

### 발효커피·토마토고추장 인기, 농가소득 증대 기여 특목

순창군의 미생물 발효기술로 만든 발효커피와 토마토고추장이 올 한해 1억2000여만원의 판매고를 올리며 장류고장의 명가임을 입증했다.

군에 따르면 2017년 12월 현재 발효커피의 매출액은 6196만원, 토마토고추장은 5747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은행사 및 홍보용 제품까지 합하면 1억2천만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그동안 순창군은 장류시장의 확대를 위해 발효소스와 미생물 분야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군은 2년 동안의 연구 끝에 수백여종의 발효미생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유산균과 고초균을 이용한 커피 발효에 최종 성공했다. 발효커피는 진한 향과 구수한 맛이 특징으로, 클로로제닉산이 다량 포함되어 항당뇨 효과가 뛰어나 입소문을 타고 판매량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여서 향후 산업화에 거는 기대도 크다.

현재 리던(REDONE) 인터네트쇼핑몰, 전주 한옥마을점, 고속도로강천산휴

게소점, 순창농특산물판매장, 발효소스도굴, 강천산발효커피전문점, 쿠팡 등에서 유통되고 있다.

토마토고추장 또한 순창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았다. 토마토페이스트를 활용해 만드는 기존 제품들과는 달리 발효미생물진흥원에서 확보한 미생물을 융합해 만든 토마토 발효액을 사용한다. 또 두 번의 발효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기존 제품보다 감칠맛이 훨씬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토종 미생물을 사용해 항당뇨, 항고혈압 기능도 뛰어나며 100% 순창산 토마토를 만들어 농가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 흡소평과 식품관련 기업들의 납품이 눈에 띄게 늘고 있으며, 토마토고추장을 활용해 만든 떡볶이 소스는 베트남 수출을 확정하는 등 사업 영역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 두 가지 발효제품은 지역 농산물 판매와 연계되고 있어 지역경



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라는 측면에서 파급 효과가 크다.

황숙주 군수는 "순창군은 고추장 등 전통장류 부분에서 이미 독보적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발효커피나 토마토고추장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고품질 프리미엄 제품을 개발해 장류제품 분야의 판매량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온실가스 줄이는 저탄소 생활 실천 앞장

### 임실군 덕치면 가곡마을 전북도 평가서 최우수상

임실군 덕치면 가곡마을이 저탄소 생활실천을 잘 해낸 녹색마을로 선정됐다.

임실군은 2017년 전북도에서 실시한 저탄소생활실천 평가에서 임실군 덕치면 가곡마을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저탄소생활실천은 급속한 지구 환경적 기후변화를 대비하고자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민참여 생활실천 운동이다.

덕치면 가곡마을은 전기와 수도, 가스 등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감소를 통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매우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민들의 저탄소 생활 실천적 환경이해도가 높아 저탄소 생활을 잘 실천했다는 평가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 및 저탄소생활 실천 홍보 캠페인 추진 등을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했다.

녹색마을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가곡마을은(이장 이군택) 주민 간 협조와 선도적인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고 저탄소생활 실천의 우수한 모범사례를 남겼다.

심민 군수는 "군민과 함께하는 저탄소생활실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후변화 대응적 살기 좋은 임실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은 주야간 일조시간이 크고 일조시간이 타 지역보다 많으며 습기의 온도가 높아 임실고추는 알싸하게 매우면서 달큰한 맛과 고운 빛깔을 띠고 있습니다. 세척부터 유통까지 임실고추종합가공센터의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시스템은 명품 임실고추를 생산합니다. [www.imsilin.kr](http://www.imsilin.kr)

매콤하고 달콤한 감칠맛

# 임실 고추

임실고추종합가공센터    세척고추    고춧가루